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운용 투자사 8개사 선정

### 전북자치도, 에코프로파트너스·현대차증권 등 2027년까지 총 195억원 출자... 3개월 내 조합 결성 민선8기 내 1조원 목표... 익산 등 시·군도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벤처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운용 투자사 8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운용사를 모집한 결과 13개사가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펀드 운용 계획, 금융투자 및 산업분야 전문성, 경력 및 투자·회수실적, 재무 안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운용사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6개 분야, 총 8개사로 △창업초기 분야 (주력산업) '현대기술투자(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신산업) 'SBO인베스트먼트' △드라이오 분야 '스케일업파트너스' △2차전지 분야 '에코프로파트너스&현대차증권' △스케일업분야 '안다시아벤처스&두일중공업CVC' △지역AC 세컨더리 분야 '비엔벤처스', '라이징에스벤처스' △지역발전협력 분야 '플랜에이벤처스&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다.

이번에 선정된 8개사는 3개월 이내 조합을 결성해야 하며,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95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도는 펀드 운용사가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 출자사업 결성목표액인 2,030억원 보다 많은 2,189억원 이상이 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엔 출자하는 금액을 합쳐 최소 442억원은 도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인 데다 타 운용사와 함께 투자되는 유동성 효과(클럽딜)와 선정된 운용사의 다른 펀드를 활용한 후속 투자를 감안하면 도내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오는 7~8월중에도 추가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바이오 분야에 700억원 결성을 목표로 35억원 가량을 출자약정할 계획이어서, 당초 올해 결성 목표액(2,130억원)은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는 가장 큰 출자규모다.

도가 올해 2차전지와 레드바이오 분야를 중점 투자산업으로 선정할 것과 관련 각각 최적의 투자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게 금융계 평가다.

특히, 눈길 가는 분야는 지역AC세

컨더리로 지자체가 세컨더리 펀드를 적극적으로 출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꼽고 도내 기업에 투자한 초기(엔젤)투자자들의 자본을 유동화함에 따라 세컨더리시장이 활성화되고, 벤처생태계의 역동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김관영 민선8기 전북자치도정은 벤처펀드 1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벤처펀드를 초과 결성하며, 출자약정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익산시 20억원과 정읍시 10억원 등 전북자치도 출자사업에 시·군이 참여하면서 벤처펀드 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산하 시군 출자까지 대행하는 사례는 국내 최초로 향후에도 타 시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민선6~7기 동안 7개 펀드 2,104억원(출자약정액 206억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민선8기 2년 만에 5,599억원(출자약정액 460억원)의 벤처펀드 결성이 예상되고 있어 누적 1조원 결성의 도정 목표가 가시화 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첫 도입하는 공모방식의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파트너 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도내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우비 입고 산책 즐기는 반려견



선선한 여름 비가 내리는 지난 22일 전주 세병공원에서 한 시민과 우비를 입은 강아지가 비를 피하며 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 경제부총리와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속의

### 김관영 도지사, 새만금 사업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 대광법 개정 등 심도있게 논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사업과 현안에 대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문화가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사업,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새만금 개발사업 중 새만금 신항 1-1 단계 배후부지 전환 사업은 현재 민자 개발로 계획된 배후부지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총 2,056억 원)으로 새만금신항에 최근 2년간 10조 규모로 투자 유치한 기업들의 본격적인 생산 시점에 맞춰 제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총 3조600억원 규모)은 농생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된 농생명용지 총

94.3㎢ 중 72.7㎢가 준공(77%)되었으며, 신속한 농업용수 공급 시 다양한 농작물 재배·첨단농업 시험 단지 구축·스마트팜 청년농 창업 특구 운영 등을 통해 국내 농업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사업(총 2,444억원)은 도시숲, 자연테마공원 등 친환경 기반 시설을 조성해 2027년부터 새만금 수변도시에 입주할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국립모두예술플렉스(총 2,505억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총 1,105억 원) 건립 사업은 기존 부지의 공동화를 막고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 등 지방소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국가지원을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의 장을 마련하며, 보다 더 편리한 광역교통인프라 등을 구축해 전북자치도의 특별한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제주·남부지방 장맛비 정부, 중대본 1단계 해제

제주와 전북 등 남부지방에 내렸던 장맛비가 잦아들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해제했다.

뉴스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호우 중대본 1단계를 해제하고 호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와 남부지방에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서 행정부는 오후 1시 30분경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이날 내린 비로 오후 4시 10분 기준 도로 등 주요 시설이 통제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 부안 지진 따른 비상1단계 해제... 전북자치도, 신속 복구·호우 대비 집중

### "도민 일상 복귀 행정력 동원"

지난 12일 오전 8시 26분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에 따라 실시됐던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가 21일 오전 9시 30분부로 해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안군 지진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도와 7개 시군이 366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오전

5시 기준 부안 등 10개 시·군에서 1,196건의 사유재산 피해를 접수했다. 같은 기간 부안 등 3개 시·군에서 접수된 공공시설 피해는 28건이다.

도와 시군은 현장에 심리활동가와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고, 점검을 강화하며 주민 안심시키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해제와 추가 여진의 징후가 없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1일 사실상 종료했지만, 피해 수습 및 복

구 단계로 다가올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피해 지역인 부안과 함께 피해 수습 및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지진 피해에 따른 추가 호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단전을 기하고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읍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2023.1.1. 전국 시행]

- 개인·법인·단체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발전에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

**기부혜택** ①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② 답례품 제공 (기부금 30% 상당의 지역특산품 등)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모든 지자체 기부금액 합산 기준)

※ 10만원 기부하시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어떻게 기부하나요?

온라인 기부하기 간편하고 빠르게! PC, 모바일 모두 가능!

**회원가입**

- 1 고향사랑e음 접속
- 2 회원가입 (카카오톡 연동)

**기부하기**

- 3 '기부하기' 클릭
- 4 '정읍' 선택 후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답례품 받기**

- 5 '정읍시 답례품' 클릭
- 6 답례품 구경 및 주문하기 (문 앞 배송 완료)

**NH농협은행**

PC나 모바일에서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인근 NH농협은행을 방문해주시면 오프라인 납부 및 고향사랑e음 안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09:00 ~ 16:00) ※ 신분증 지참

지금 기부하기

<고향사랑e음>

### 답례품 현황

**농축산물** 한우, 쌀, 귀리, 잡곡, 팥채소, 만감류(홍예향, 레드향), 토마토, 대추단감

**가공식품** 쌍화차,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떡, 마시는 죽, 전통주, 감식초, 지황제품, 된장, 간장, 동근마즙, 복분자원액, 복분자즙, 복분자주, 생청국장, 청국장완, 울외장아찌, 짬뽕국차

**제조품** 기능성 삼푸, 헤어팩

**지역상품권**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 고향사랑기금 사업현황

-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 : 7개 권역 통합 보육 프로그램 / 42백만원
-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 운영 : 전용공간 조성·운영 / 25백만원

정읍시 | 시민소통실 대외협력팀 ☎ 063) 539-5067~8